

2018년 7월 10일

#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실적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팩트셋, S&P500 2분기 영업이익의 전년 대비 20.0% 증가 추정

### 미국 어닝시즌 기대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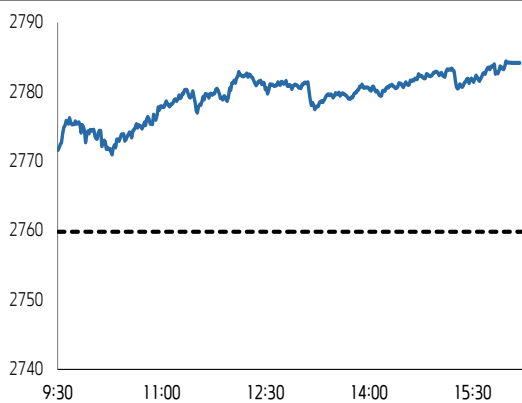
유럽증시는 미-중 무역분쟁 우려감이 완화된 데 힘입어 상승. BHP 빌리톤(+2.64%), 글렌코어(+1.92%) 등 원자재주가 상승 주도. 미 증시 또한 무역분쟁 우려가 완화되자 2분기 실적 시즌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이며 상승. 특히 13일(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JP 모건 등 금융주가 이를 주도. 더불어 무역분쟁 완화 기대속에 산업재 업종도 동반 상승 하며 지수 견인(다우 +1.31%, 나스닥 +0.88%, S&P500 +0.88%, 러셀 2000 +0.62%)

글로벌 시장은 미-중간의 무역분쟁 우려감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고, 미국의 고용보고서 결과도 긍정적으로 발표되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짐. 이러한 가운데 미 증시는 무역분쟁 우려에서 벗어나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미국의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 속에 상승. 특히 금융주가 상승을 주도 했는데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로 추정.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은 지난 6일(금) S&P500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0%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등 2분기 미국의 실적 기대감이 높다고 발표. 기저효과로 인해 에너지(yoy +142.5%)와 소재(yoy +48.5%)가 이익 개선을 주도하겠지만, IT 또한 전년 대비 무려 27.2%나 급증할 것으로 추정. 금융주에 대해서도 완만한 대출 증가 및 일부 순이자 마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양호한 어닝 시즌 기대.

팩트셋은 3분기 S&P500 영업이익 또한 전년 대비 21.7% 증가할 것으로 전망. 에너지(yoy +100.9%), 금융(yoy +38.6%) 등이 이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 무역분쟁 우려감이 여전하지만 산업재(yoy +18.0%), IT(yoy +15.4%) 또한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 전망하는 등 3분기 실적 또한 개선 기대감이 여전히 높음. 미 증시는 2분기 어닝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3분기 가이던스 또한 양호하다는 점이 부각되며 견조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추정.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지수	종가	D-1
코스피	2,285.80	+0.57	홍콩항셱	28,688.50	+1.32
코스닥	808.28	-0.08	영국	7,687.99	+0.92
DOW	24,776.59	+1.31	독일	12,543.89	+0.38
NASDAQ	7,756.20	+0.88	프랑스	5,398.11	+0.42
S&P 500	2,784.17	+0.88	스페인	9,927.00	+0.22
상하이종합	2,815.11	+2.47	그리스	749.75	+0.36
일본	22,052.18	+1.21	이탈리아	22,033.44	+0.4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금융주 상승

JP 모건(+3.09%), BOA(+3.64%), 씨티그룹(+2.68%), 골드만삭스(+2.80%) 등 금융주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기업실적 개선 기대감이 유입되며 상승 했다. 더불어 국채금리가 상승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보잉(+2.18%), 캐터필라(+4.11%), GM(+1.51%), 나이키(+1.05%) 등 중국 무역분쟁 이슈 관련주는 무역분쟁 우려감이 완화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코노코필립스(+1.94%), 셰브론(+1.49%), 엑손모빌(+0.69%) 등 에너지주는 국제유가가 하락 불구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다는 점이 부각되며 상승 했다.

한편, 아마존(+1.66%), 알파벳(+1.06%), 페이스북(+0.74%), 넷플릭스(+2.63%) 등 FANG 기업들 또한 실적 개선 기대감속에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넥스테라 에너지(-2.93%), 듀크에너지(-3.65%),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3.76%) 등 유틸리티 업종은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매물과 방어주에 대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 P&G(-1.83%), 펩시코(-1.64%), 코카콜라(-0.54%) 등 필수 소비재 또한 동반 하락 했다. 트위터(-5.38%)는 7 천만개의 의심스러운 계정을 삭제했다는 소식 여파로 급락 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2.56%	대형 가치주 ETF	+0.94%
에너지섹터 ETF	+2.60%	중형 가치주 ETF	+0.72%
소매업체 ETF	+0.28%	소형 가치주 ETF	+0.76%
금융섹터 ETF	+2.29%	배당주 ETF	-0.25%
기술섹터 ETF	+0.76%	변동성 ETF	-5.11%
소셜 미디어업체 ETF	+0.55%	대형 성장주 ETF	+0.88%
인터넷업체 ETF	+0.86%	중형 성장주 ETF	+0.80%
리츠업체 ETF	-0.93%	소형 성장주 ETF	+0.51%
주택건설업체 ETF	+1.34%	신흥국 고배당 ETF	+1.65%
바이오섹터 ETF	+0.52%	신흥국 저변동성 ETF	+1.51%
헬스케어 ETF	+0.73%	하이일드 ETF	+0.17%
곡물 ETF	-1.06%	물가연동채 ETF	-0.20%
반도체 ETF	+0.75%	Long/short ETF	-1.5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67.93	+1.48%	+1.14%	+0.52%
소재	369.46	+0.94%	+1.60%	-2.68%
산업재	617.36	+1.81%	+2.53%	-3.63%
경기소비재	888.27	+1.17%	+2.07%	+1.69%
필수소비재	534.07	-0.48%	+0.94%	+2.68%
헬스케어	1,002.19	+0.65%	+3.77%	+2.02%
금융	452.89	+2.32%	+2.66%	-2.64%
IT	1,256.99	+0.82%	+3.15%	+0.07%
통신	149.18	-1.42%	+0.72%	-0.62%
유틸리티	261.28	-3.13%	-0.77%	+6.65%
부동산	203.56	-0.92%	+0.82%	+3.1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실적 개선 기대 종목 매수세 지속 전망

MSCI 한국 지수는 1.45% MSCI 신흥 지수도 +1.80%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 +196 계약)에 힘입어 1.35pt 상승한 297.6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12.7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증시는 전일에 이어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무역분쟁 우려감이 완화되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는 등 투자심리 개선 효과에 기반한다. 더불어 한국시각 오전 10 시 30 분에 발표되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달(yoy +4.1%) 보다 상승한 전년 대비 4.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호적이다. 여기에 2 분기 KOSPI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52.4 조원에서 51.0 조원으로 소폭 하향 조정 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3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등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다는 점도 우호적이다. 특히 KOSPI 12 개월 FWD PER 이 8.45 배, PBR 도 0.91 배에 그치는 등 펀더멘탈 또한 양호하다는 점도 주목된다.

물론 여전히 무역분쟁 우려감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미국이 160 억 달러에 달하는 대 중국 수입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5,000 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다만, 최근 미국과 중국 정부가 무역분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조짐이 있어 무역분쟁 이슈가 재차 확대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 증시는 양호한 펀더멘탈에 기반해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종목과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독일 수출 증가

독일 5 월 수출은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치(mom -0.3%)나 시장 전망치(mom +0.8%)를 상회한 결과다. 한편, 수입도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

7 월 유로존 Sentix 투자자 신뢰지수는 전월(9.3) 보다 상승한 12.1 로 발표되었다.

6 월 미국의 고용추세지수는 108.94 로 전월(107.72) 보다 상승 했다. 여전히 견고한 고용시장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였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달러 약세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생산 재개소식이 전해지자 소폭 하락 했다. 캐나다 오일샌드 채굴 업체 선포는 예상보다 빠른 7 월 중에 신크루드의 원유 시추가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 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수출 차질을 상쇄하는 원유를 생산할 것이라는 분석도 하락 요인이었다. 다만, 리비아의 국영석유기업이 산유량이 크게 감소했다고 발표한 점은 낙폭 제한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지수는 파운드화와 엔화가 달러대비 약세를 보인 반면,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자 여타 환율에 대해 소폭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드라기 ECB 총재가 펀더멘탈이 양호하다고 주장한 데 힘입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여기에 독일 무역지표 개선 등 경제지표 또한 견고한 흐름을 보인 점도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파운드화는 보리스 존스 외무장관이 브렉시트 관련해 전격 사임을 하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무역분쟁 우려감이 완화되자 채권가격이 하락한 여파로 상승 했다. 더불어 미국의 6 월 고용추세지수가 상승(107.72→108.94) 하는 등 견고한 고용시장에 대한 기대감 또한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구리는 달러 약세 및 무역분쟁 우려 완화 기대감이 유입되며 상승 했다. 여타 비철 금속 또한 동반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09%, 철근도 1.82%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3.85	+0.07	-0.40	Dollar Index	94.089	+0.13	-0.82
브렌트유	78.07	+1.24	+1.00	EUR/USD	1.175	+0.03	+0.95
금	1,259.60	+0.30	+0.41	USD/JPY	110.83	+0.33	-0.06
은	16.139	+0.44	-0.36	GBP/USD	1.3252	-0.23	+0.83
알루미늄	2,113.25	+1.60	+0.73	USD/CHF	0.9917	+0.24	-0.19
전기동	6,405.75	+1.97	-1.80	AUD/USD	0.7464	+0.46	+1.69
아연	2,697.75	-1.36	-4.40	USD/CAD	1.3115	+0.24	-0.54
옥수수	367.00	-1.61	-1.14	USD/BRL	3.8722	+0.25	-1.00
밀	508.00	-1.41	+1.35	USD/CNH	6.6205	-0.65	-1.00
대두	872.00	-2.52	-0.91	USD/KRW	1112.20	-0.33	-0.70
커피	115.05	+0.83	-0.04	USD/KRW NDF 1M	1112.70	-0.17	-0.51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856	+3.47	-1.47	스페인	1.290	-1.60	-0.20
한국	2.557	+0.20	+2.70	포르투갈	1.771	-2.70	+1.50
일본	0.040	+0.70	+1.50	그리스	3.842	-8.50	-10.50
독일	0.300	+0.80	-0.40	이탈리아	2.662	-4.80	+1.50